

## 능 촌 잠 언

박 훈 서(목사, 충주 야촌교회)

▶ 주먹구구에 박 터진다

확실한 계획없이 일을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그 결과가 좋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.

▶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을 이긴다(북한)

서로 하나가 되어 힘과 마음을 합치면 어떠한 어려운 일과 상대도 이길 수 있음을 뜻한 말이다

▶ 한 자를 배워주자면 천 자를 알아야 한다(북한)

가르치는 자는 한 글자를 가르칠 때 그 글자와 관련된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됨을 이르는 말로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남을 가르치면 안 되고 폭넓은 지식을 지닌 자가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.

▶ 한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열 사람 가는 길로 가라(북한)

한 사람의 의견에 따른 독선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여러 사람 즉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만 결과가 좋음을 뜻한 말이다.

정치하는 사람들이 측근의 말만 듣지 말고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나타낸 교훈적 말이다.

▶ 의붓아버지 떡 치는 데는 가도 친 아버지 도끼질하는 데는 안 간다  
자신을 미워하는 의붓아버지가 떡을 치는데 가면 떡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친 아버지가 도끼질 하는 데에 가면 자칫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.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위험한 장소에 가면 해를 입으니 조심하라는 말이다.

## 곤충이야기 - 송장벌레

벌레이름이 ‘송장’이라니 “무섭게 생겼거나 무시무시한 성질을 지닌 놈인가 보다”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그 모습을 대하였을 때는 이렇게 멋진 곤충이 있었나 할 정도로 모양새나 색깔이 세련되고 화려한 모습이였다.

송장벌레의 종류는 검정신사복 같은 말끔한 외투를 두른 넓적송장벌레, 검정송장벌레, 큰 수중다리송장벌레와 빨간 마후라를 가슴에 두른 우단송장벌레와 등근대모송장벌레 그리고 화려한 모습을 갖춘 등황색 바탕에 점이 네 개인 너점박이송장벌레, 노란색바탕에 점이 네 개 박힌 네눈박이송장벌레, 흑색과 주황색의 물결무늬가 조화를 이룬 무늬송장벌레 등이 있다.

송장벌레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. 동물의 시체에 잘 모여들기